

사회

‘달리는 흥기’ 차량 DMB 단속 강화 ‘한목소리’

女 사이클 선수 3명 사망

운전자들의 DMB(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시청과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일 여자 사이클 선수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북 의성군의 교통사고는 41년 운전 경력의 화물트럭 운전기사 백모(65)씨가 12년간 다녔던 같은 길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승객적으로 DMB를 틀어놓고 운전을 하다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백씨는 “DMB로 드라마를 보다가 ‘쿵’ 하는 소리를 듣고서 사고가 난 줄 알았다”면서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들이받은 후였다”고 밝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속 70km 주행시 DMB를 6초만 보더라도 전방을 보지 않은 채 118m를 달리는 것과 같다.

지난해 광주·전남에서 교통사고 1만8438건 중 55.2%가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요소인 전방주시태만 등에 의해 발생했으며, 사망자도 53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네비게이션의 보편화에 따라 상당수 운전자들이 의식 없이 DMB를 통해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 길찾기 또는 방송 시청을 하기 때문에 사고는 점



2일 광주지역 한 차량 운전자가 DMB를 시청하며 주행하고 있다. 결눈질로 앞쪽을 쳐다보며 DMB를 조작하는 모습이 위태롭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차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 1일 천모(여·32)씨는 아이를 데리고 집에 가는 길에 택시를 탔다.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DMB를 통해 야구를 시청하는 택시기사를 보고 내내 불안이 떨어야 했다. DMB를 통해 야구를 보던 택시기사는 한 술 더 떠 동료 기사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답답을 늘어 놓았다.

광주에서 나주로 출근하는 직장인 권모(45)씨는 최근 출·퇴근길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DMB로 드라마

를 보면서 운전하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드라마에 빠져 도로를 달리다 갑자기 갓길에 나타난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하마터면 칠 뻔했기 때

문이다.

하지만 경찰의 지도·단속은 사실상 전무하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는 벌점(15점)과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DMB시청은 특별한 제재 법안이 없다”며 “단속에 걸릴 경우 DMB를 끄면 증명하기도 어려워 단속 방법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파진흥협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으로 지상파DMB 수신기(휴대폰 포함) 판매량은 4558만 대가 넘는데 이 중 980만대가량이 차량 탑재용으로 추산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운전중 DMB시청 얼마나 위험한가? 전방 주시율 50% 독...만취운전보다 위험 ‘시청 금지법’ 처벌 규정 약해 실효성 의문

도로교통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DMB시청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은 50.3%로, 혈중알코올 농도 0.1%상태의 전방주시율 72%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의 DMB나 휴대폰 관련 규제 법률은 미비하다.

DMB 시청금지법은 도로교통법 상에 훈시 규정으로만 들어가 있고, 벌점이나 범칙금 등에 대한 조항이 없어 규제를 강제할 수 없다. 규정은 있으나 지도·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운전 중 DMB 시청 등에 대한 규제가 우리보다 훨씬 까다롭다.

영국은 운전자가 운전을 하며 DMB 등 멀티미디어 시스템과 네비게이션을 작동하거나 주시만 해도 최고 1000파운드(약 184만원)의 벌금을 매길 수 있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차량이 정차 중이라도 운전자 자리에서 DMB 영상이 보이면 범칙금 225호주달러(약 26만5000원)를 매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정좌석 있는 정기이용권 버스 하반기 운행

앞으로 버스 출·퇴근길이 좀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출·퇴근 시간대에 지정좌석제로 운영하는 정기이용권 버스 운영을 올 하반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며 출근 시간의 경우 오전 6~9시, 퇴근 시간은 오후 5~10시로 이월 결정, 고시됐다.

정기이용권 버스 운행 횟수는 하루 4회 이하이다. 1개월 이상 정기이용권을 구매해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2~3개 노선을 시범 운행한다. 요금은 자율 신고제 방식으로 운영, 지역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정기이용권 버스 도입으로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차내 혼잡을 완화하고 자가용 이용자를 버스로 끌어들이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오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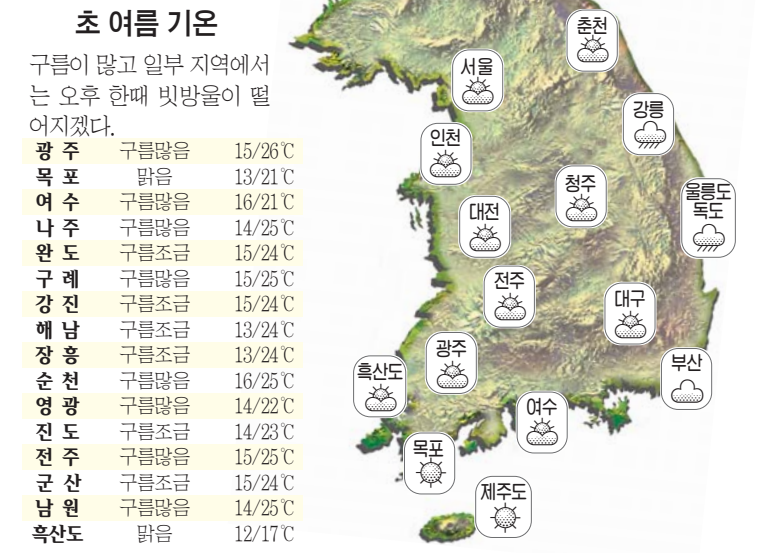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different regions like Seoul, Busan, and Jeju,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and precipitation chances.

Table with daily weather forecasts for the week, including high/low temperatures and precipitation.

사무관 승진 기준안

시교육청 노조 반발

광주시교육청이 새로 마련한 5급 사무관 승진심사 기준안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하반기 5급 승진 대상자를 근무성적(30%), 역량평가 보고서 작성(35%), 인터뷰 평가(35%)를 중

합해 결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공무원노조(위원장 정영호)는 성명서에서 “승진 대상자들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근무시간 중 무단 이탈하거나 학원수강을 하는 등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노조는 “근무성적 평가(50%)와 면접평가(50%)를 합산해 승진 대상자를 결정하고 5급 사무관 정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Daemyung Resort News featuring golf, skiing, and other resort activities. Includes text like '대명리조트 특별분양' and '지금 이 절호의 구입기회!'.

Advertisement for Hwinahot (히나핫) featuring a wooden hotbed. Text includes '우리가족의 건강은 히나핫이 지킨다' and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Advertisement for Hwimi (희미네랄) featuring a mineral supplement. Text includes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and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Advertisement for Minsan (민산) featuring a health supplement. Text includes '참뽕 골드' and '가죽 건강 생각하는 당신 마음을 담았습니다.'.